▶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한지문화축제** 개최

전통종이의 쓰임새 널리 알린다

오는 5월 19~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한지문화축제 개막식.

전통종이의 가치를 되살리고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계승·발전하는 제21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오는 5월 19~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전주한지, 온누리에 펼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한지의 다양한 쓰임새를 널리 홍보, 한지의 산업화·세계화로 내닫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전주지역 한지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지산업관'은 한지산업의 현주소를 가늠 할 수 있는 자리로 전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선 서예용 한지와 화선지를 비롯해 포장·인쇄용 한지, 한지등, 친환경 건축자재(벽지), 화장품연료, 생활용품 등 다양한 한지소재 생산품이 전시 및 판매된다.

또한 조직위는 한지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5월30일 국 회에서 전주한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한지국제컨퍼런스'를 갖는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론이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한지와 부채가 결합된 '전주부채 명인명품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인 김동식 선자장 부채에 도내 유명 한지미술작가의 그림이 그려진 작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저변 확대를 위한 진흥행사로 열린다.

또한 전주한지문화축제 일환으로 개최되는 '2017 대한민국한지예술대전'은 올해로 23년째를 맞는 우리나라 한지예술을 대표하는 공모전으로, 한지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조직위는 그동안 진행해온 전국한지공예대전을 대한민국한지예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한지공예대전과 대한민국한지미술대전으로 나누어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예술대전은 국회의장상 1천만원 등 총 4천여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한지예술대전 한·미 특별 교류전, 해외작가 한지 특별 초청전, 한지등 '온누리에 밝히다'전시를 비롯해 전주시민 한지박·한지공 넝기대회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남호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훌륭한 전주한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1회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은 5월 19일 오후 7시에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개막식 특별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개막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영화 '아수라' 무대인사에 정우성 · 주지훈 등 참석

배우 정우성·주지훈과 김성수 감독이 오는 29일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인 〈아수라〉의 무대인사에 참석한다.

〈아수라〉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악인들의 전쟁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9월 개봉 당시 반역적인 문제작으로 평단을 사로잡았다.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정만식 등 베테랑 배우들이 완벽한 연기 합을 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열성적으로 〈아수라〉를 지지하는 관객들을 지칭하는 '아수리언'이 나타나는가 하면, 영화 속 가상 도시인 '안남시'의 시민을 자처하는 팬덤이 만들어지며 뜨거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정우성과 주지훈, 정만식 등 배우들은 각자 바쁜 촬영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의기투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영화 〈강철비〉 촬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지훈은 국내외를 오가며 영화 〈공작〉 촬영에 한창이다. 정만식은 드라마 〈맨투맨〉 방송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정우성은 지난 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제경쟁 심사위원을 맡아 전주영화제와는 인연이 깊다.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는 "〈아수라〉는 근자에 나온 한국영화 중 가장 반역적인 문제작임에도 개봉 당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아수라〉의 '전주 돔 상영' 결정은 이 작품의 가치를 곱씹어보자는 의미가 있다. 배우들과 함께 〈아수라〉의 재미와 의미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정해은 기자

내일부터 전북연극제 개최

23일 소리문화전당 명인홀서

제33회 전북연극제가 19~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참가작으로는 극단 명태(전주)의 '정순'을 비롯해 극단 자루(익산)의 '아빠의 고백' 극단 둥지(남원)의 '조선간장, 기억을 담그다' 극단 까치동(전주)의 '나는 나비'가 관객을 만난다.

정두영 (사)한국연극협회전북지회 회장은 "전북연극제 역사 이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북 연극인들이 직접 희곡을 써서 작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극단 모두가 창작 초연작을 선보이기는 이번 연극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순'(홍자연 작·최경성 연출)은 권력 찬탈전의 희생양이었던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삶을 그린다. 정순왕후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숙부의 힘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당한 단종과 생이별을 한다. 그 후로 65년간 홀로이 말못할 고통과 회한, 그리움 등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끝내 침묵 속에 떠나야 했던 비운의 왕비.

작품은 그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미약하나 끈질긴 인간들의 질긴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길고 긴 질곡의 세월을 건너가면서도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 사랑의 위대함을 담고자 했다.

'아빠의 고백'(오지윤 작·연출)은 마음과 다르게 표현이 서툰 두 부녀의 일상을 통해 오늘날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조선간장, 기억을 담그다'(문광수 작·연출)는 쉼 없이 돌아가는 세월 속, 잊었던 우리 기억 저편에 남겨져 있는 가족과 사랑을 반추한다.

'나는 나비'(최정 작·정경선 연출)는 무용가 최승희의 삶을 극화했다. 작품은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될 법한 최승희의 무용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다.

/정해은 기자

순창 옥천미술관서 외국작가 7인 기획 초대전

순창군 옥천골 미술관에서 외국인 작가 7인의 예술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전시회가 열려 군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출신 외국작가 7인의 작품 80여점을 전시하는 기획 초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양화 및 공간예술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버려진 공간들을 탐구하고나 우주의 섭리,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사회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는 미국출신 안지 디산토(Anjee DiSanto), 세바스찬몬테스(Sebastian Montes), 보니 커닝햄(Bonnie Cunningham), 과 캐나다 국적 다니엘 킬더프(Daniel Kilduff), 그레고리 팀린(Greg Timlin), 영국 출신 사라 호드키스(Sarah Hodgkiss),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릴라 베어(Leela Bear)다. 이들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현재는 국내에서 머물며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 들이다.

군은 군민들에게 각국의 예술문화를 소개해 세계의 예술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외국작가들이 바라보는 한국 문화와 정서에 대해 제3자의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시회를 기획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내일부터 소규모예술활동 신청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삼삼오오'프로젝트를 공개모집하고 오는 19~21일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삼삼오오'는 도내 거주자 가운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커뮤니티 발굴 및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음악감상·독서 등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닌 그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문화와 예술의 소비를 넘어서 도내 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주부·시니어 등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5인 이상 구성)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jbct-edu@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토요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 군산예술의전당서

"사람마다 오장육보로되 놀부는 오장 칠보인가 보더라. 어찌하여 칠보인가 허니 심술보 하나가 왼편 갈비 밑에 주먹만 하게 딱 붙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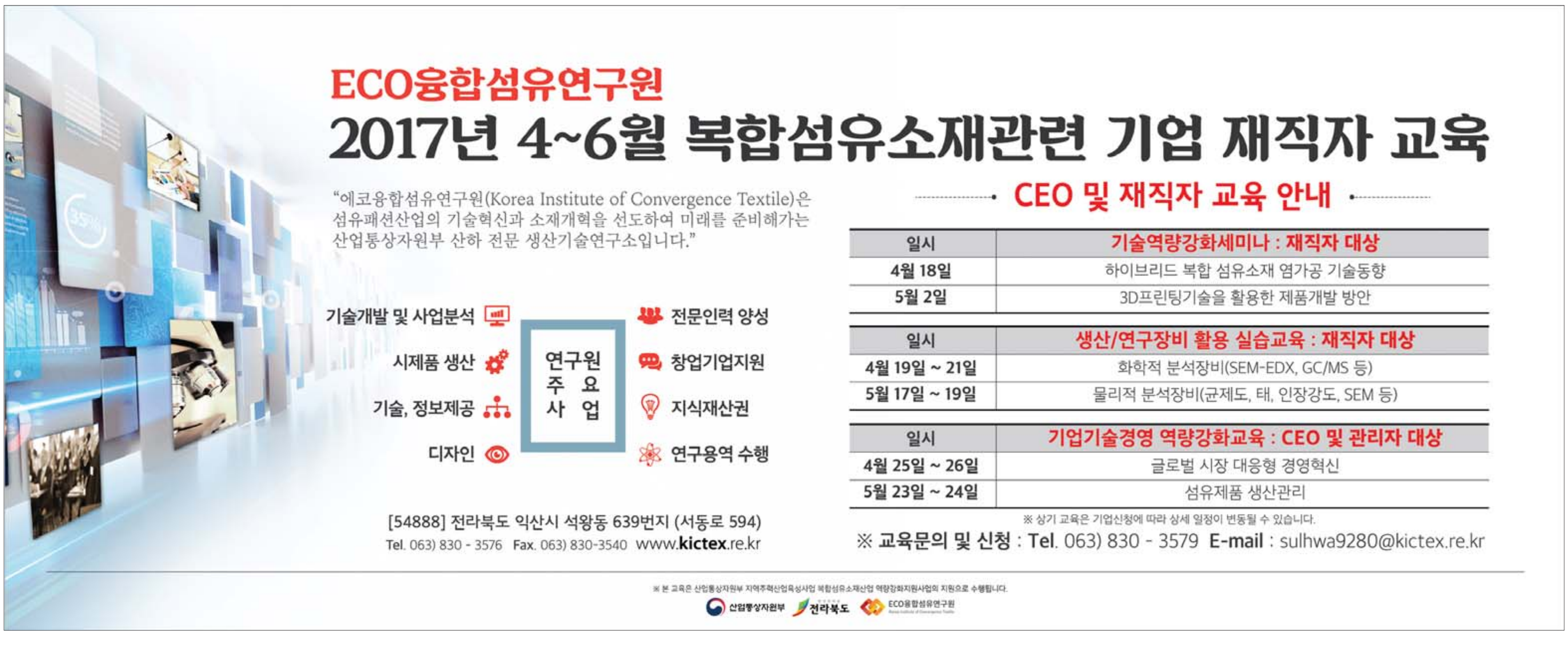
판소리의 대중화 도모와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군산예술의 전당과 전북도립국악원이 손을 잡았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전북도립국악원과 함께 웃음과 해학이 가득한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를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는 흥보가를 바탕으로 판소리의 음악적 특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무대에 반영하여 영상의 다양한 활용(맵핑, 홀로그램 기법)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연 사이사이 관객과 함께 하는 장면을 배치하여 보는 공연에서 함께 즐기는 공연의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더불어 익살스러운 연기와 함께 현시대에 맞는 춤과 노래, 밸리댄스가 관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는 것도 한 특징으로 전 연령의 흥미를 돋우는 요소들을 이곳저곳에 배치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도비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어 인터넷예매 40%와 현장예매 60%로 티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예매는 공연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1인 2매씩 배부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